

나카야마 터널

전체 길이 877m의 나카야마 터널은 일본에서 가장 긴 수작업으로 파낸 터널입니다. 고마쓰구라 지구의 주민들이 4km에 달하는 위험한 고갯길을 대체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49년에 걸쳐 건설됐습니다. 고마쓰구라에는 잡화점과 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의 히로카미 마을이나 고이데마치(둘 다 현재 우오누마시)에 가기 위해 고갯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긴급 치료를 받거나 각종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고충과 더불어 고개를 넘을 때 발생하는 사고 등을 이유로 터널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터널은 약 50년에 걸쳐 고마쓰구라에서 인근 마을로 가는 보다 안전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1998년, 근대식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새로운 나카야마 터널이 개통되었고, 구 나카야마 터널은 여러 군데의 함몰과 낙석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터널

현재 나카야마 터널은 안전상의 이유로 입구부터 70m 지점 이상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견학 가능한 구간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철골 프레임과 붕괴 방지용 철망, 더 밝은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안정성과 가시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입구의 간판에는 터널에 관한 정보와 연표, 아카이브 사진, 일본 전국의 다른 수작업 터널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토목 학회는 나카야마 터널을 일본의 토목 유산 중에서도 귀중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터널을 보존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

터널 입구에는 터널을 판 사람들의 옛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2003년에 공개된 나카야마 터널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호루마이카>의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1998년에 제작을 시작했으며 고마쓰구라의 주민들이 터널의 역사적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넓히고 철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내용을 전달하고 촬영을 돕기 위해서 가로로 낸 굴이 벽 두 군데에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와 가까운 쪽에 있는 굴은 마차나 차량 통행용으로 확장되기 전의 터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굴착한 토사나 돌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한 목재 광차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영상 워크스루

방문객들은 터널의 일부 구간만 통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입구 근처 간판에 있는 QR 코드로 접속할 수 있는 비디오 투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는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차량에 길을 양보할 수 있도록 가로 너비가 확장된 짧은 구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 안에서 거칠게 깎인 벽에 충돌한 차량이 남긴 흔적 등도 많이 찍혀 있습니다.